| 현불 논단 |

연등회는 인류문화 공헌 축제



임돈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동국대 종신 석좌교수

연등회, 1500년 역사 가진 축제
조선시대에도 민중에게 사랑받아
지난 2012년엔 무형문화재 지정

전통문화 축제이자 진화하는 유산
유네스코 '지속 가능한 발전' 부합

환경 · 평화 등 관점서 연등 제작을
'무형 유산 지속 발전' 목표 삼아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11월 17일 한국 정부가 등재 신청한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를 결의했다. 최종 등재 결정이 남았지만, 무난히 등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의 연등회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지켜온 불교계의 큰 행사로서 신라 진흥왕 12년(551)년에 시작된 1500년 역사를 지닌 민족 축제이다. 국교가 불교인 신라,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루어져 그 규모나 위엄이 매우 장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로 와서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억불숭유정책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축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민중의 사랑을 받던 연등회는 민간 차원에서도 성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96년(불기 2540년)부터는 축제이름을 연등축제로 정하고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렬을 비롯하여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연등법회), 대동(회향)한마당 등의 행사가 추가된 종합적인 축제로 되었다.

2012년에는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하며 현재까지 지속과 단절 및 변화를 거쳐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연등회는 우리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축제이며, 계속 진화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새로운 목표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무형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또 다른 목표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연등회의 가치와 그대로 부합된다.

연등회의 핵심은 연등이다. 연등회의 연등은 단순한 등불의 축제가 아니다. 불을 밝힘으로써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다. 등을 만들고 등불을 밝히는 것은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축제이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하여서도 연등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연등을 만들 때 하나의 염원을 담아 만든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자녀의 인원대로 연등을 밝혔다고 기록돼있다. 등 모양도 수박, 잉어, 학 등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많았다.

연등을 개인의 염원뿐만 아니라 단체, 공동체,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적 관점에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바람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통일기원등', 사회 갈등의 해소를 염원하는 '화해등',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테러의 종식을 기원하는 '테러종식등'을 만들면서 또 관등을 하면서 국제적 평화에 대한 염원을 교육하고 일깨우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등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회통합과 평형성 △분쟁 방지와 해결 △평화와 안전 회복 △지속적 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필자는 유네스코의 새 화두인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연등회는 어느 무형유산보다 더 많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연등회를 유네스코의 새로운 정책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때 연등회는 세계가 공감하고 즐기는 그리고 인류문화에 공헌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포스트 코로나와 랜선 설법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괴로움의 해탈(사성제)'이다. 괴로움은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다. 따라서 괴로움에 대한 인식과 이해, 해결하는 지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팔만대장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음 심(心)' 한 자로 요약할 수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 마음의 정체 즉, 본래 마음자리(본성, 불성)가 실체가 없는 무자성(無自性)이지만, 인연(6근과 6식의 접촉, 오온의 화합)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규봉선사와 보조국사는 본래의 마음자리가 허공처럼 공적(空寂)하고, 신령스럽게 인식하는 영지(靈知)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마음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주체이다. 심왕(心王)이라고 한다. 마음이나 신은 실체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마음이나 신의 존재(존재론)에 대한 이해는 각자 개인의 마음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인식론의 문제이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에 대한 경전의 말씀은 〈아함경〉 〈법구경〉 〈화엄경〉과 유식학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함경〉에서는 "이 세상은 마음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또, 마음에 의하여 괴로워진다"고 하였고,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心爲法本)"이라고 하였다. 〈화엄경〉 '야마궁중게찬품'에 대장경의 골수라고 전하는 '유심게'가 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의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마음의 이치를 관찰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은 실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用心)이 있다. 따라서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면 '지금 생각하는 내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여 관찰(알아차림, 마음챙김)' 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명상(선정) 수련인 위빠사나와 사마타(삼매) 수행이다.

코로나19는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 가고 있다. 제2의 페스트로 인류의 큰 재앙이다. 유럽의 페스트가 중세의 절대적인 신의 권위를 무너트리고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처럼 코로나는 대중이 모여서 법회와 예배를 하는 종교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모이면 위험한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되었다.

현대는 유튜브가 대세이다. 우리는 이번에 초중고대학까지 온라인 원격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수업을 대체하였다. 우리 불교는 경전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유튜브 강연이나 랜선 설법을 통한 이해와 소통이 이웃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각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자가정에 새로운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신행상담과 법회를 통한 설법을 해야 한다. 법사는 마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해야 한다. 마음은 철학, 종교학, 인문학, 정신의학, 심리학, 명상, 심성산업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다. 어려운 역경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불교 교단에게 기회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살아숨쉬는 유산 '연등회' 되길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가 한산하다. 수많은 거리축제들이 취소됐다.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때, 한국불교 전통을 알리는 연등회(燃燈會)의 낭보가 날아왔다.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 된다는 소식이다.

문화재청은 11월 17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연등회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2월 14~19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 정보 보완,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평가기구는 세계 각국의 대표 목록 등재 신청 42건을 심사해 등재 25건, 정보 보완 16권, 등재 불가 1건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전세계 70개국 90건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등회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 한국에서는 21번째다.

그동안 연등회는 품격이 다른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보다 적극적인 문화유산 보호활동이 전개된다. 앞으로 연등회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등회를 단순한 전통문화의 재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과제를 함께 녹여내는 장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에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축제, 다문화 문제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 등 살아 숨쉬는 축제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등회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

홍제사 불사 후원 적극 동참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 영외법당으로 호국 홍제사 건립에 나섰다. 11월 24일 착공한 호국 홍제사는 계룡대 군 장성들과 장병들을 위한 신행공간을 넘어 군불교 총본산으로 자리할 것이다.

영외법당인 호국 홍제사 불사는 군과 지역관계 강화에 따라 종교시설의 개방 트렌드에 따른 것이다.

법당은 불자들의 신행 수행공간으로서 1층 공양간, 2층 다목적홀, 군불교 역사 전시실, 어린이법당, 3층 대웅보전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관은 2층 구모로 총 24개 객실과 1개 지대방으로 구성돼 군불교 미래를 짊어질 군법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공간이자 불자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들을 체험하는 포교와 전법 공간이 될 예정이다. 영내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포교 등은 군불교를 넘어 포교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른 종교계는 이미 예배 등 종교공간과 별도로 문화생활 등이 가능한 교육관 건립에 나선 바 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막대한 불사 비용이다. 110억 원에 달하는 불사금은 불교계가 힘을 모은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불사 비용에 버금간다.

먼저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1억 원, 호국사 1억 원, 원주 법웅사에서 1억 원, 부산 금련사 1억 원 등 현역군승법사들과 교계 안팎에서 불사금을 약정하고 있다. 보다 많은 불자들의 홍제사 불사 동참이 절실하다. 호국 홍제사는 군장병들 그리고 계룡시 인근의 군가족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포교의 전당이 될 것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불사에 보여준 불자들의 후원 행렬이 홍제사에서 다시 일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통신교육 3개월과정(제5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녹음강의 통신교육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 용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12월 7일부터 3개월
·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화 질의 상담으로 지도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